■ 우리구 이사람 – 용호새마을금고 최 대 복 이사장

이기대에 동백나무 4천그루 심어

최대복 이사장이 잘 자란 동백나무를 바라보며 흐뭇해 하고 있다.

99년부터 용호향우회 회원들과 봉사
아름드리 동백나무 볼 때 보람 느껴

최대복(65·용호3동)용호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용호동 이기대 사랑은 각별하다. 최 이사장은 자신이 용호향우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1999년부터 회원들과 함께 이기대순환도로변에 애기동백을 심기 시작해 지금까지 4천여 그루를 심었다. 그는 작은 묘목이 이제는 제법 큰 키를 자랑하는 나무로 자라 이기대를 찾은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특히 주말이면 타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도열하듯 늘어선 동백을 보고 함박웃음을 지을 때면 가슴 뿌듯하다.

동백나무를 심게 된 동기는 IMF가 막 끝나가던 시기에 용호동과 이기대를 사랑하는 용호향우회 회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애향심을 일깨우기 위해 50~60년대 이기대 해안가를 중심으로 군락을 이루던 동백나무를 심자고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최 이사장은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우리가 어렸을 적 이기대 농바위 등 해안가에는 동백나무가 숲을 이뤄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 전부터 정원수 등으로 팔려나가면서 이기대는 예전의 풍광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저와 회원들이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 동백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99년 회원과 함께 거제도를 찾아 6~7년생 동백나무를 구입, 이기대순환도로변에 심게 됐다는 최 회장과 용호향우회 회원들은 2006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나무 심기에 열을 올렸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동백나무를 관리하며 공을 들였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지금은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라 이기대의 또 다른 명물이 되고 있다.

최 이사장은 동백꽃을 추운 겨울에도 정답게 만날 수 있는 친구와 같다는 '세한지우(歲寒之友)'로 비유하며 동백꽃 예찬에 침이 마를 정도다.

"옛날 혼례식에서 동백나무를 대나무와 함께 자기 항아리에 꽂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곳 장자산 일원에 심은 동백나무가 잘자라 아름다운 동백숲으로 우거질 수 있도록 다같이 가꿔나갔으면 합니다"

최대복 이사장은 제5회 자랑스런 구민상 애향상을 받았으며 현재 용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용호발전협의회 운영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

■ 반갑습니다 – 부산광역시볼링협회 김 명 진 회장

전국 최고 실업팀 명성 되찾길

남구청볼링팀 경기력 향상 위한 숙소 마련 길터
선수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사기진작에 노력

김명진 회장이 재도약을 통해 남구청볼링팀의 부산볼링발전을 꾀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남구청볼링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한 체육인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볼링협회 김명진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 회장은 부산볼링을 대표하는 남구청볼링팀 소속 선수들이 숙소가 없어 훈련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체육회 관계자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또 구했다. 그 결과 8,500만원의 금쪽같은 예산을 확보해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에 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 회장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남구청볼링팀의 재도약은 물론 부산볼링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예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특히 체육회와 사무처장을 역임한 이규호 부구청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또 선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훈련수당을 대폭 인상했다. 타시도 실업팀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연봉으로 더 이상 우수한 선수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내린 결단이다. 앞으로도 구청, 남구체육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김 회장은 "한때 전국 최고의 실업팀으로 명성을 떨쳤던 남구볼링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며 "구와 협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회장의 이러한 열정과 관심에 남구청볼링팀 이승영 감독과 6명의 선수들은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무역업을 하고 있는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취임과 동시에 꿈나무 육성사업과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며 부산볼링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김 회장은 "예산 확보를 통해 남구청볼링팀이 전국 최고의 실업팀으로 그 명성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볼링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구볼링팀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업무연찬이 민원업무의 기본이죠"

오륙도 친절지기

남구청 민원여권과 박철웅씨

웃는 얼굴 환한 미소는 기본
철저한 업무파악으로 친절응대

문현동에 사는 정한옥씨는 얼마 전 토지대장을 발급 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여러 가지 질문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공무원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한옥씨는 자신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친절하게 응대해 주는 공무원이 너무 고마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한옥씨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공무원은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박철웅(33·지방행정서기)씨로 그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철웅씨를 칭찬하는 엽서가 하나 더 있다. 장민석씨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담당 직원을 찾았다. 마침 직원이 출장 중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철웅씨가 업무를 대신해줘 감사했다는 엽서를 보내 온 것.

이달의 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박철웅씨는 지난 2005년 대연3동주민센터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처음엔 공직에 대한 기대만큼의 회의감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무원과 민원인의 소통이 중요함을 깨닫고 민원인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철웅씨는 친절이란 업무 파악이 제일 우선으로 내가 아는 만큼 민원인에게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민을 맞이 한다.

철웅씨가 매일 만나는 민원인은 약 80여 명 많을 때는 100여 명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한다.

통합민원을 담당하다보니 다른 부서의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한다.

심지어 토지관리과나 지역경제과의 민원도 물어오는 민원인이 많아 난감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통해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그를 동료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통합민원의 달인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

우격다짐으로 민원을 요구하는 고객들을 대할 때 가장 힘들다는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차분하면서도 꾸준하게 설명하다보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환한 웃음을 짓는다.

최정순 기자

세무1과 주세훈씨 부산시장상 받아

세무1과에 근무하는 주세훈(지방세무주사보·사진)씨가 지난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1년 지방세업무연찬회에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과제 연구로 부산시장상을 받았다.

주세훈씨는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상가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 과표현실화율을 높여 세수증진에 힘쓰자고 주장했다.

주세훈씨는 "현재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제도가 있어서 실거래가가 반영돼 과표 현실화율이 높은 반면 상가와 상업시설 등은 시가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같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해 과세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화제의 인물 – 재무과 김 병 석 담당

지방행정의 달인 등극 '가슴 뿌듯'

보상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42억원 일손 절감 효과 기대
전국 시·군·구 무상 보급, 관광소프트웨어 개발 제2목표

재무과에 근무하는 김병석 경리담당이 지난달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에서 지방행정의 달인 상과 함께 인증패를 받았다.

김 담당은 이날 보상행정에 최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달인 칭호를 받은 공직자는 전국 28만여 지방자치공무원 중 28명으로 대부분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김 담당은 보상관련 사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이 분야 달인으로 등극했다.

그는 2005년 보상담당으로 근무하면서부터 보상업무의 비효율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MS오피스 VBA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상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프로그램 개발로 한 사업 기준 평균 8일 이상 걸리던 보상작업이 단 하루만에 해결할 수 있어 연간 420억원의 일손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된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100여 개 시·군·구로 무상 보급돼 사용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내달부터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교재로도 채택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김 담당은 "2005년 처음 보상담당으로 발령받고 사무실을 찾았을 때 보상관련 민원인과 직원들이 몰려 마치 난장 같다는 느낌을 받고 보상업무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높이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후 엑셀을 이용한 보상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고 업무를 통해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 마침내 오피스 모든 버전에서 호환할 수 있는 보상자동화 프로그램을 완성 짓게 됐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입력만 하면 자동 계산되고 회계 및 등기관련 모든 서류 등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는 사하구청 총무과에 근무하는 김상대 담당의 도움이 있었기 가능했다.

둘은 3년간 동고동락 하다시피 하며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열과 성을 다했다.

김 담당은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외국의 보상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행정 달인 김 담당은 지난 78년 공직에 몸담기 시작해 지금까지 33년간 우직하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동료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보상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전표수거제, 컴퓨터환율회계 조견표 등을 도입해 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FM맨'이라는 별명의 소유자 김 담당은 웹사이트(www.stepkorea.com)을 운영하며 남구를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민이 주축이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또 다른 인생 목표로 정하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 남구는 김 담당에게 실적가점을 부여, 인사상 혜택을 받게 했다.

★신문을 읽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
세상과 당신사이 중앙일보
◈ 어디서나 읽기편한신문 (한국역사 100년을 새로쓰는 베를리너판)
◈ 정보의 깊이가 다른 신문
◈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자녀 교육의 다양한 섹션 (틴틴경제, 애플영어, 대입수능지)
◈ 다양한 요일별 섹션
월 : 현대인의 건강섹션
화 : 취업과 창업섹션
수 : 중, 고교생 교육섹션
목 : 부동산, 금융, 자동차섹션
금 : Week & 주말섹션
토 : 인물, Style
◆ 구독 신청시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문현 : 632-4861 감만 : 627-7703 대연 : 627-0471 용호 : 622-9620

대호레포츠 회원모집 합니다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 (수시모집)
※ 새봄맞이 전 종목 대폭 할인행사
위치 : 유엔로터리에서 외국어대학 방향 150m 지점
☎ 627-0027~8

남구주민 컴퓨터 교육 특강 개강 : 2011년 5월 2일
수강료 : 6만원 월, 수, 금 10 : 00~10 : 50 (10명)
초보자 컴퓨터 확실히 익히기
인터넷검색, 이메일 보내기, 카페만들어 사진올리기, 엑셀
대상 : 남구주민(주부, 노인, 실직자) 선착순 10명
국비 노동부 / 계좌제(실업자) 훈련안내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전산응용조선제도 및 선체설계	5월 개강 (학원문의)	2개월	13 : 00~15 : 00 (월~금, 주5일)	10명	14만원	56만원
CAD실무			11 : 00~13 : 00 (월~금, 주5일)	10명	12만원	48만원
전산실무자격증 (워드, 엑셀자격증)			11 : 00~13 : 0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40만원
사무직전문가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13 : 30~15 : 3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40만원

대학졸업자, 일반실업자, 주부 취업을 원하시는 분(교통비 월 5만원 지급, 선착순 마감)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옆, 베이직하우스 8층

아모레 퍼시픽 헤라·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일하는 여성은 아름답다!
• 급여외 의료비, 경조비, 교육비 등 지원
• 메이크업 등 체계적 교육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라·설화수 판매·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모레 퍼시픽 남부지점 T.627-2225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뻐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 : 00~8 : 20, 10 : 30~11 : 50
오후 6 : 00~7 : 20, 7 : 30~8 : 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